티베트 노승, 사후 28일 삼매에 들다

게쎄 잠빠가쵸 스님, 입적 이후 '화제'

한여름 더위 속 사망했으나
경직 · 부패 등 사망징조無
사후삼매인 '툭담' 추정돼
달라이라마, 조사 지시도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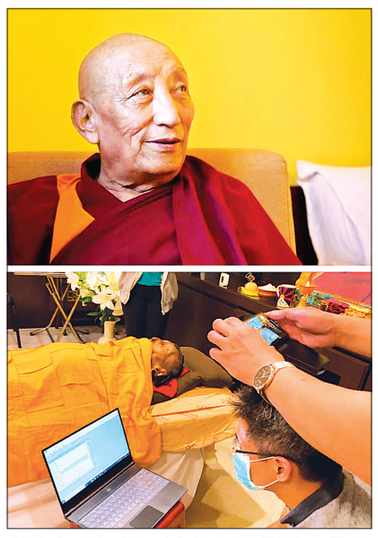
수행이 성숙한 수행자는 생사에 자재해 진다고 많은 법문에서 일컬어진다. 이를 몸소 증명한 사례가 대만에서 등장했다. 타이베이에서 입적한 티베트 출신의 노승의 시신이 28일간 사후경직, 부패 등의 사망의 징조를 보이지 않아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부디스트 글로벌 도어' '자유 아시아 방송' '티베트 넷' 등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지난 7월 14일 타이베이에서 세수 86세, 법랍 78세로 입적한 게쎄 잠빠갸초 스님은 달라이라마가 대만에 파견한 최초의 게쎄(한국의 불교학박사) 스님이다. 23년간 대만에 상주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으며 현재 달라이라마의 중국어 통역관들은 모두 이 스님의 제자인 것으로 유명하다.

오랜 지병과 노환으로 입적한 잠빠갸초 스님의 법구는, 티베트 불교식으로 장례절차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 시신에 그 어떠한 부패방지처리 없이 입적한 병상 그대로 냉방시설만 설치된 방으로 이운됐다. 그러나 이튿날 조문과 기도를 위해 방문했던 동료 게스님들이 법구를 확인하는 절차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사후 삼매로 불리는 '툭담'에 든 것으로 밝혀졌다.

툭담은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력이 높은 수행자가 육체적으로는 사망하였으나 그 미세한 의식이 육신에 남아 삼매에 든 상태를 말한다. 툭담에 든 수행자의 시신은 일반적인 시신과 달리 사후경직이나 피부의 변색, 악취 등의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 특별히 심장부근의 체온이 남아 있거나, 시신의 크기가 줄어드는 등의 현상도 나타난다.

잠빠갸초 스님이 입적한 당시 대만은 한 여름으로 평균 38도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고, 법구가 안치된 방은 19~20도 가량의 냉방만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구의 피부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탄력이 있었고, 변색이나 반점 등의 현상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어떤 냄새도 나지 않았다. 5일이 넘도록 시신에 아무런 징후가 없자 대만의 티베트 사무국은 인도의 달라이라마 사무국에 보고했고, 달라이라마는 "시신의 코에서 액체가 나오고 피부색이 변하기 전까진 다비식을 미루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을 초청하여 시신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진행하라"고 전했다.



입적 후 1달 가량 사후삼매인 '툭담'에 든 잠빠갸초 스님(위), 스님의 법구를 조사하는 연구진(아래). 사진출처=티베트 넷

입적 11일째 되는 날 대만국립 중앙연구원의 학자들이 스님의 법구를 과학적으로 조사했다. 조사팀을 이끈 물리학자 리팅궈 교수는 "검사결과 시신의 포화산소도는 86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가까우며, 겉보기로 내부장기가 분해되지 않았으며 얼굴의 혈색과 미온의 체온이 시신에 남아있다"고 확인했다.

함께 참여했던 리시창 교수는 "혈중산소 농도와 함께 130회의 맥박도 함께 측정됐다. 그러나 이 맥박이 실제 몸의 신호인지, 혹은 침상의 진동인지는 알 수 없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다. 리시창 교수는 "이 정도의 혈액산소도라면 체내에서 아주 미세한 생리활동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선 측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적 15일째인 7월 28일과 8월 1일, 대만 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들과 연구진들이 뇌파를 측정했으며, 확언할 수는 없으나 뇌에서 미세한 반응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소식이 현지 언론과 SNS를 통해 전파되면서 해외 불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수행을 놓지 말고 정진하라 마지막까지 보이는 모습"이라며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또 지난 3월경 동일하게 툭담에 들었던 티베트의 스님들에 대한 사례도 함께 전파되고 있다. 잠빠갸초 스님의 법구는 8월 21일 대만에서 다비됐다.

스리랑카 승가대, 정부가 직접 운영

불교계 요구로 교육부 이전
승단에서 정부로 주체 변경



정부산하로 이전된 스리랑카 팔리 대학. 사진출처=아시아트리뷴

스리랑카의 승단에서 관리하던 두 곳의 대형 승가대학이 교계의 요청으로 교육부 산하로 운영주체가 이전됐다. 지난 8월 22일 스리랑카의 온라인 시사 뉴스 '아시안 트리뷴'은 이 특별한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8월 21일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대통령궁 비서관실에서 열린 제 5차 불교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스리랑카 승단이 운영하던 두 개의 불교 대학을 교육부 산하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불교자문위원회는 스리랑카 교계의 장로스님들이 모인 단체로 대통령과 정부에 조언을 제시하는 고문역을 맡고 있다.

스리랑가 승단의 요청에 따라 정부 산하로 이전된 대학은 '스리랑카 불교와 팔리 대학(Sri Lanka Buddhist and Pali University)'과 '스리랑카 빅슈 대학(Bhiksu University of Sri Lanka)'이다.

스리랑카 불교와 팔리 대학은 1985년, 행동하는 지성으로 이름 높았던 월폴라 라훌라 스님이 설립했다. 해당 학교는 불교철학과 팔리어를 중심으로 가르치며 출가자를 우선해서 선발하는 대학으로 스리랑카 정부가 공인한 정규대학이다.

스리랑카 빅슈대학은 1968년 스리랑카 불교계의 발원으로 세워진 최초의 출가자 전용 고등교육기관이다.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스님들을 교육하고 전법을 위한 전초기지로 이름 높은 대학으로 역시 스리랑카 정부가 공인한 정규대학이다.

코타바야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나 의미상에 중요한 이 두 대학의 운영 주체를 스리랑카 교육부가 맡으면서, 대학의 운영비에 국고가 투입도리 수 있음을 자문위원회에서 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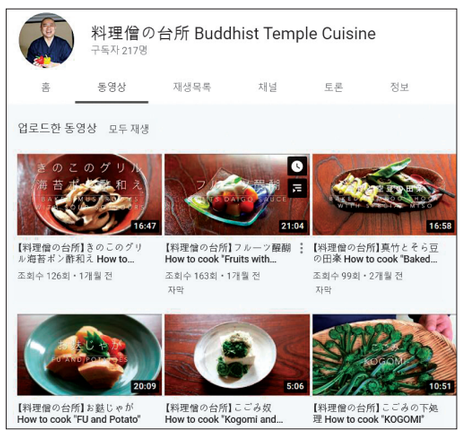
또한 정부 산하에 들어온 이상 국무장관의 감독 하에 교육공무원들의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다양한 부처에 분산되어 관리되어 오던 불교교육기관에 대한 단일한 부처의 직접적인 감독이 필요함이 언급됐다는 점에서 두 대학의 변화가 스리랑카 승가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님 유튜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日불교, 새 포교형태 눈길
영상으로 불교 가치 전해

코로나 시국으로 실내 활동시간이 급증한 가운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이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스님들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거나, 영상을 제작해 올리는 '스님 유튜버' 늘고 있다. 지난 8월 8일 일본의 '일간 겐다이'는 스님 유튜버들을 집중 취재, 그들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보도했다.

코로나19의 광범위한 급속전염으로, 일본에선 일찍부터 불교계의 유튜브 이용이 등장했다. 대부분의 사찰들이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해 조석예불을 중계하거나 법회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백중기간에 맞춰 천도재를 중계하는 사찰도 다수 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스님 유튜버'들이 조용히 늘고 있다.



일본 사찰요리를 소개하는 카쿠호 스님의 채널. 사진출처=유튜브 캡쳐

최근 '요리스님의 부엌'이라는 채널을 시작한 아오에 카쿠호 스님이 대표적이다. 스님은 2005년부터 일본의 사찰요리를 대중화 하고,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스님은 "요리는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요리뿐만 아니라, 조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는 한 마디를 함께 전하고 싶다"며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카쿠호 스님은 미국유학 경험을 살려 영어로도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통해 삶과 마주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스님들이 유튜브에 진입하는 모습도 보인다. DJ활동으로 유명한 토모미츠 가신 스님은 일본최대의 불교 페스티벌인 '코겐(向源)'의 운영자이다. 가신 스님은 "코로나19로 페스티벌이나 디제잉 등의 직접적인 삶의 보람이 없어졌다. 일상이 비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럴 때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변화를 바라는 타이밍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감성을 무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유튜브에 진입한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보람차게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또 이러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기에, 유튜브 활동은 새로운 '자리이타'의 실천을 느끼게 해준다"고 전했다.

가신 스님은 "지금 시대는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높아지고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전염병에서 보호하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종교가 보여줘야 하는 콘텐츠는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콘텐츠다"라고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英, 코로나 사태에도 법등 이어진다

요크 도심에 포교원 개원



영국 요크시 길리게이트에 새롭게 개원한 도심 포교원. 사진출처=더프레스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주에 위치한 요크시에 도심 포교원이 개원해 화제다. 지난 8월 24일 뉴질랜드 일간지 '더 프레스'는 영국 요크시 중심에 새롭게 개원한 불교 포교원의 소식을 보도했다.

요크 불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 도심 포교원은 유럽불교공동체 중 하나인 '트리라트나(Triratnam, 삼보회)' 소속이다. 트리라트나의 오랜 회원이자 포교원장인 샤캬파다(Shakyapada)는 "트리라트나 불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불교의 관습과 경전을 서양인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요크시 중심부에 개원한 이 도심포교원에선 불교교리와 명상을 가르치고, 공정거래 제품과 책을 판매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포교원측은 "명상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 예정이다. 지역주민들이 명상과 불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샤캬파다 포교원장은 "우리 포교원은 불교적 계율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포교원의 불자들이 불교도임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을 더욱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계율이 지침으로써 친절과 자비, 만족, 성실, 자각의 다섯 가지 실천을 강조한다. 이는 불교의 전통적인 5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포교원의 중심적인 사상을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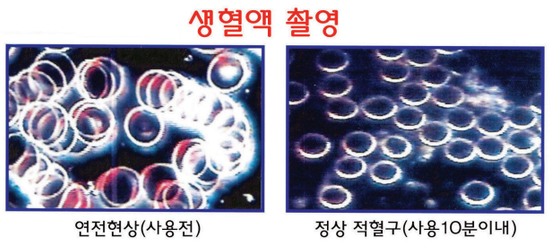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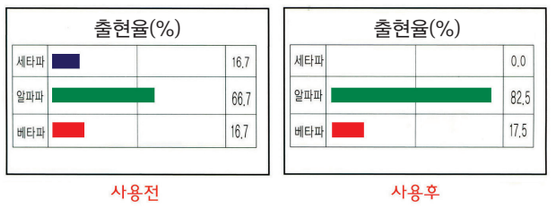
항균(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발뒷꿈치 각질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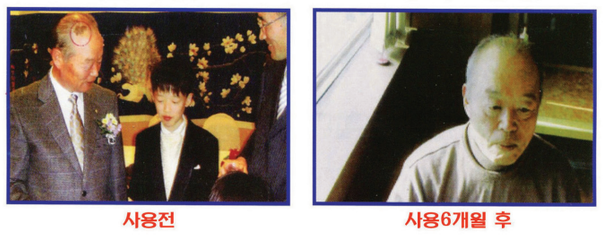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2개 = 3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6개월 후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